

증권 다이제스트

KB증권
9일까지 ELS 8종 등
총 10종의 상품 공모

KB증권은 9일까지 3개 기초자산(KO SPI200·HSCEI·Eurostoxx50)으로 연 6.6%(세전)의 수익을 제공하는 KB able ELS 427호(3년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를 포함한 주기연계증권(ELS) 8종, 파생결합증권(DLS) 2종 등 총 10종의 상품을 공모한다.

Nikkei225지수와 홍콩항셩중국기업지수(HSCEI), 유로스탁스50(Eurostoxx 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KB able ELS 422호(3인덱스 슈퍼리자드 울트라 스탱다온형)는 노 낙인(No Knock-In Barrier) 구조로 3년 만기에 6개월 단위로 조기상환 기회를 주며, 최고 연 4.4%(세전, 리자드 조기상환 시 연 8.8%)의 수익을 제공한다. /김문호 기자



삼성증권
‘해외주식 아카데미’ 진행

삼성증권은 늘어나는 해외주식 투자자들을 위해 해외주식 투자 방법과 전략을 소개하는 ‘해외주식 아카데미’를 3월 말까지 진행한다. 해외주식 환전 및 매매방법부터 주요 글로벌 시장의 상황, 투자유망 종목 등 해외주식 관련 정보를 총망라해, 삼성증권 해외주식팀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70분에 걸쳐 강의를 진행한다.

삼성증권 ‘해외주식 아카데미’는 8일 테헤란로 삼성증권 스마트사업부 세미나실, 15일 남부순환로 삼성증권 강남금융센터, 29일 서초대로 삼성증권 삼성타운 금융센터 개최된다. 참여방법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및 팝(POP) HTS, 모바일 앱 ‘앱팝(mPOP)’을 통해 원하는 날짜 및 지역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김문호 기자



SK증권
ELS·ELB 각 1종 공모

SK증권은 오는 9일까지 주기연계증권(ELS) 1종 및 주기연계파생결합사채(ELB) 1종을 공모한다.

제2397회 ELS는 홍콩항셩(HSCEI)지수 및 유로스탁스50(EUROSTOXX 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5개월 만기 조기상환형 원금비보장 상품이다. 두 기초자산이 매 6개월 조기상환평가일마다 최초기준가격의 90% (6개월, 12개월, 18개월), 85% (24개월, 30개월), 80% (36개월) 이상이면 연 6.40% 수익을 지급한다. 최소가입금액은 100만원이고 100만원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손영지 기자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내정

IB부문 독보적 존재감, 글로벌금융 최적임자

조직 전반 동기부여 효과 기대
22일 열리는 주총서 임명 확정

NH투자증권의 차기 사장에 정영채 IB(투자은행)사업부 대표(부사장)가 내정됐다.

NH투자증권은 6일 열린 이사회에서 정 대표를 차기 대표이사 사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정영채 신임대표 후보는 1964년생으로 대우증권 기획본부장과 IB 담당 임원을 거쳐 2005년 NH투자증권(옛 우리투자증권)으로 자리를 옮긴 후 14년째 IB사업부 대표를 맡아 왔다. 다소 보수적인 농협금융 내에서 최연소 최고경영자(CEO)로 발탁된 정 대표는 내부 조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워 조직 전반의 동기부여 효과가 기대된다.

정 신임 대표는 NH투자증권의 IB부문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내정자.

을 국내 자본시장의 탑티어(top-tier)로 키워 온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NH투자증권은 기업공개(IPO),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주관 등 기업금융(IB) 전 분야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기업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 자문에서도 독보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다.

NH투자증권 임추위는 “증권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NH투자증권을 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리드할 글로벌 IB로 키워낼 인물로 판단해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특히, 증권업의 사업모델이 과거 주식 브로커리지(중개) 중심에서 자본 활용형 IB 비즈니스로 무게 중심이 옮겨 가는 현 상황을 리드해 나갈 최적의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초대형 금융투자회사의 출현 및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현재의 자본시장에서, 기업금융 최고 전문가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NH투자증권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정 대표는 14년째 NH투자증권의 성장을 이끌어온 일원으로서 수 차례 합병으로 인해 섞여 있는 여러 기업문화를 효과적으로 통합해 낼 것으로 예상된다.

NH투자증권은 오는 22일 열리는 주주총회를 거쳐 사장 임명 절차를 마무리한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화장품 부문 내실 다져 성장 가속화”

애경산업 IPO간담회
화장품 회사로 변모 준비 마무리
추정 부문매출 2014년비 10배 ↑

올 상반기 코스피 ‘대어’로 꼽히는 애경산업이 기업공개(IPO)를 통해 화장품 회사로 변모할 준비를 마쳤다. 다만 ‘견미리 팩트’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고,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위해성 판단 이슈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애경산업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7일부터 수요예측을 거쳐 13, 14일 청약을 실시하고 이달 말 코스피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85년 4월 설립된 애경산업은 애경그룹의 생활용품 사업부문을 넘겨받은 현재 국내 생활용품 시장 점유율 2위 회사로 성장했다. 국내 최초 주방세제 ‘트리오’, ‘2080’ 치약, ‘캐라시스’ 삼푸 등 생활용품 브랜드의 안정적인 기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애경산업 IPO(기업공개) 기자간담회에서 송기복 애경 경영지원부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발표하고 있다. /애경산업

반을 바탕으로 화장품 부문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아직 4분기 실적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 해 3분기까지 매출액(4406억원)을 감안하면 2016년 매출액(5068억원)을 뛰어넘는 성과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이익률 역시 2016년 7.9%에서 지난해 3분기 기준 9.5%를 달성해 수익성 개선도 눈에 띈다.

특히 하나금융투자가 추천한 애경산업의 2017년 화장품 부문 매출은 약

2730억원으로 2014년(256억원) 대비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송기복 애경 경영지원부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올해 2분기에는 에스테틱 브랜드인 ‘더마브랜드(가칭)’와 화장품 브랜드 ‘FFLOW’를 런칭할 예정”이라며 화장품 부문 내실 다지기에 주력할 계획을 밝혔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견미리 팩트’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지적한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화장품 부문에서 AGE20’s 매출 비중이 지난 해 기준 90% 가까이 된다”면서 “한 개의 브랜드가 계속 30% 이상 고신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규 라인업의 의미있는 매출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애경산업은 본격적으로 해외진출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9월 중국 상하이에 현지법인 설립을 설립해 현지 판매 조직 및 채널을 확보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301@

하이트진로
회사채 1800억원 발행
5년연속 오버부킹 성공

하이트진로가 회사채 1800억원을 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발행하는 회사채는 3년만기로 금리는 개별 민평금리 -5bp이다.

하이트진로는 공모채 1300억원어치 발행을 앞두고 지난 5일 수요예측을 실시했다. 수요예측 결과 발행 목표 1300억원의 두 배에 달하는 총 2540억원의 자금이 몰리는 흥행을 기록했다.

하이트진로는 공모채 수요예측 시 민평금리에서 -15bp~15bp로 금리밴드를 설정했다. 수요예측 흥행에 성공한 하이트진로는 내부논의를 거쳐 총 18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하이트진로의 회사채 공모는 수요예측이 도입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주목받아왔다. 2014년부터 매년 모두 오버부킹이 이루어지며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특히 투자수요가 급감해 수요미달이 속출했던 2016~2017년에도 연이은 오버부킹에 성공하며 하이트진로만의 안정성이 부각됐다. /박민용 기자 parku7854@

미래에셋대우 글로벌주식본부, 해외자산 3배로

1년만에 해외주식자산 4조원 돌파
양질의 콘텐츠·차별화된 인프라 효과

미래에셋대우의 글로벌주식본부가 고객의 자산을 늘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글로벌주식본부는 국내외를 모두 아우르는 글로벌 브로커리지(주식 중개) 영업지원, 서비스 조직으로 고객 연령별, 목적별 투자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덕분에 지난 1월 29일 미래에셋대우의 해외주식자산은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2017년 1월 초 1조 1534억원 대비 3배가 넘게 증가한 수치다. 미래에셋대우의 해외주식자산이 급증한 데는



미래에셋대우 2기 글로벌 주식 전문가 양성과정.

양질의 해외주식투자 콘텐츠 제공, 차별화된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글로벌 브로커리지(GBK) 전문인력 육성 등이 주요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부터 글로벌 투자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100시간 이상의

집합교육과 선진 해외기업 탐방 등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분기마다 개최되는 글로벌주식포럼을 통해 영업직원들에게 글로벌 시장과 분기별 추천종목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원 역량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글로벌주식본부에서는 ‘글로벌 그레이트 컴퍼니즈(Global Great Companies) 5선’, ‘중국 대표기업 소개 30선’ 등의 글로벌 리서치 자료를 통해 직원과 고객들에게 추천종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 미래에셋대우가 추천한 해외주식 포트폴리오의 평균 수익률은 57.8%를 기록했으며 추천종목 43개 가운데 7개 종목이 2배 이상 상승하는 성과를 보였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고객들이 해외주식투자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국내주식을 매도한 당일에 환전을 하지 않고 해외주식을 매수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증시 온라인 거래 시행과 국내 최초 브라질 주식 중개 등 차별화된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